

'3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선 주자마다 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성향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책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 뺨칠 만큼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정치가라면 누구나 한가지씩 자신만의 교육 정책을 펼치는 나라! 그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설치는 현상이 이제는 정치적인 무대 위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의 교육정책은 그렇게 훌륭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몇 년을 못버리고 정신없이 바뀌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못잡는 현실은 왜 이리 반성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나마 오래 버티오던 '삼불'마저도 정치논리에 휩쓸리는 것은 보면서 이제는 교육정책에 기본 줄기마저 하나도 남지 않는구나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삼불'에 대한 찬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문제는 정치적인 시류를 타고 이렇게 성급한 교육정책은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교육은 결코 섣부른 시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받는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언제나 일회성의 것이다. 그것을 합부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웅  
건국대 교수

**교육의 뿌리 흔드는 '정치'**

로 다루는 것은 그들의 고귀한 권리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다듬고 고쳐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자세는 어디로 사라지고, 하루 아침에 뜬구름이 되어 사라져 버린 교육제도의 근간은 세대를 시험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신중하게 애써 만든 교육제라도 무에 그리 탐욕 제도가 있었는가? 만들 때 신중해야 고치는 자세가 무겁게 된다. 근본을 지켜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보완해 가면서 관철은 교육제도 하나 정착시키는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런

데 만드는데 신중하지 못하니 고치는데도 경솔하고, 그래서 또 몇 년을 못가 근본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서서 하는 것이다. 그러한 혼란에 휩싸여 회생당한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속죄를 할 것인가? '삼불'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육제도의 근간은 30년 안에는 절대 고치지 않는다는 입법을 먼저 하고 나면 합부로 만들거나 고치자는 소리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요, 신중하게 세워진 정책이나 제도가 한 30년 다듬어지다 보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교육제도를 지닌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불자의 눈**

**승가와 화합을 다시 생각한다**

2표의 힘,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총회가 법인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개헌이 가능한 52표에서 2표가 모자랐다.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 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했던 종정스님의 유시에 무산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종헌개정안의 부결을 지켜보며 '승가'와 '화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종정 법전스님의 유시에 답했듯이 승가와 화합은 다른 말이 아니다. 승가란 단순한 스님들의 집단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구하는 좋은 벗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승가집단은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나누어 갖는다. 사심이 없다는 의미다.

이번 종헌 개정안을 놓고 집행부는 종단의 오랜 숙제를 이번에는 꼭 풀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 때문에 종정 스님도 유시를 내려 화합을 독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총회라는 '정치적' 기구는 반드시 통일된 의견으로 자리하지 않는다. 화합이라는 대의명분과 계파의 실리라는 현실이 투표를 하게 했고 2표의 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법장스님 재임 당시 한 표 차이로 부결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화합과 정치현실이라는 방정식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인 듯 하다. 하지만 중앙총회가 대부분의 불자들은 '정치'보다는 화합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태고종 유공선사 추모다례는 '명품'**

태고종이 특별한 법식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은 종단 중흥에 앞장서 온 140여명의 유공선사(有功先師)들을 위해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법패 등 전통 의식을 계승한 것을 종단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는 태고종은 발상이다.

일제강점기 거쳐 가는 불교의 맥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선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종단인들 존재하겠는가? 크게는 민족이나 국가 작게는 특정 단체가 그 근본뿌리를 바로 알고 제대로 숭모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이 없이 현재와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평탄치 않은 역사를 가진 우리는 앞 세대의 피와 땀으로 오늘이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태고종의 유공선사 추모다례는 종단의 여러 난맥상을 화합으로 극복하려는 종단적 합의를 드러낸 것이기도 해 더 의미가 크다. 지난해 태고종은 선암사 사태, 황룡사 사건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 태고종은 종단 화합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전통문화전승관 건립불사를 원만히 회향했다.

그래서 태고종의 유공선사 추모다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뜻 깊게 봉행된 '명품'이라 할 만하다. 이런 선현함을 바탕으로 좀 더 정진해 나간다면 태고종의 미래는 훨씬 더 견고하게 다져질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5. 절대선은 절대악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근본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과학사상의 영향력 확대에 대항하여 반동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종교운동이다. 중세까지 종교는 정치·과학·철학·예술 등의 여러 분야와 미분화된 상태에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갈릴레오(1564-1642), 뉴턴(1642-1727), 다윈(1809-1882)이 주도한 과학혁명을 거치는 동안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 기독교에 가장 위협적이고 큰 타격을 준 것은 1859년 '종의 기원'이란 저서로 발표된 다윈의 '진화론'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독교는 스스로의 권위를 다시 찾으려는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1881년 프리스턴대학의 하지와 워필드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기독교 근본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그 핵심교리는 철저하게 문자주의에 기초한 소위 '성서(聖書)무오유설(無誤謬說)'로서 타종교인은 물론 같은 종교인이라 해도 신앙 노선이다 르면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년 레이건 대통령을 내세워 사회분위기를 다시 기독교 근본주의로 몰아감으로써 새로운 탈출구로 삼는다. 레이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성경의 날을 선포하고, "약의 리비아와 선의 이스라엘의 갈등이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었다"고 선언한 뒤 리비아에 무자비한 폭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이 막을 내린 데 힘입어 자존심을 회복한 미국은, 세계 유일

에 방전정인란 부시 닥트린이 나오게 된 것도 '악의 축'에 대한 확산,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만이 신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관장한다고 믿는 독선과 오만 때문이다. 그는 이라크전에 앞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와 협했다"고 말했다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 세계를 향해 주저 없이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편'이라고 욕박지르며 줄세우기를 꾸준히 시도해왔다.



근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후 개신교 보수운동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개신교 교회 모습

**종교근본주의 전쟁 부추기며 인류 위협...폐쇄성 극복돼야**

최강국이란 위상이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온다고 착각한 나머지 반미·반기독교 세력인 이슬람권을 응징하기 위해 거침없이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 등 수 차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며, 그 기세는 가히 신정일치(神政一致)라 할 만큼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대에 정점에 달한 듯하다. 9.11 이후 미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상황판단에 따른 선제공격, 즉 이른바

물론 2005년 6월 인터넷서널 헤랄드 트리분은 "미국이 기독교 원리주의에 빠져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 등 근본주의에 대한 자성과 경고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볼 때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극우 기독교도들의 지원과 이슬람 세력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시오니즘(유대주의)의 부추김에 의해 지구 전체를 전쟁터로 몰아가고

중국식 장벽을 쌓았다. 노동은 휴식과 쾌락이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강제노동을 도입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선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죽이고 또 죽였다"고 설화한 바 있다. 평등이란 '절대선'을 위해 출발한 사회주의가 어떻게 파멸이란 '절대악'으로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지적을 음미하면서 종교근본주의의 위험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꾀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문론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 수 있음.

**◇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오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I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5)943-6570 / 중부총무원 043)648-8942 / 제주총무원 064)724-0318~9